

보석, 몸 위에 세워지는 작은 건축물

김성희 지음 | 생각의나무 | 216쪽 | 값 15,000원

《주얼리 시간여행》 낸 김성희 씨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사람들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주얼리. 보석 디자이너 김성희 씨는 액세서리로 취급되기

쉬운 '보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사물 주얼리를 문화,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쓴 그의 저서 《주얼리 시간여행》 역시 그런 시도들 중 하나다.

“주얼리는 누군가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특정 장소,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추억의 소재가 되죠. 제게도 ‘추억’의 장신구가 있거든요. 이는 보석이 삶의 기억을 간직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되겠죠.”

동양화를 전공하다가 보석학원 배형순 회장을 통해 ‘보석 디자인’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다는 그는 이탈리아 유학시절부터 역사서를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제작년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 내 ‘통달인 클럽’에 보석 관련 글을 쓰면서부터다.

“전문 역사학자가 아니기에 고등학교 때 배운 세계사 정도의 상식을 바탕으로 집필을 시작했어요. 생활사, 패션, 정치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고대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 현대의 주얼리까지. 그는 인류의 역사만큼 긴 주얼리 역사를 쓰면서 번역·일·공부 세 가지를 병행했다. 대영박물관을 통해 자료사진을 구하면서 엉뚱하게 잘못된 사진이 오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경험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주얼리 관련 도서를 또 쓰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보석을 부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서양이 더 심하죠. 소비자가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유명 브랜드

를 구입하면 센스 있다는 말을 쉽게 듣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몰개성은 업계간의 심한 경쟁을 일으키거나 명품복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명품복제 자체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은 보석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성희 씨. 그는 현재 비첸차페어ENTE FIERA DI VICENZA 트렌드 북 작업을 위해 이탈리아에 가 있다. 일을 할 때는 장신구를 잘 하지 않지만 시계와 귀고리는 꼭 착용한다는 그가 좋아하는 보석은 독일 NIESSING 사의 주얼리와 아프리카, 인도에서 나오는 투박하면서도 큼직한 제품들.

“올해가 양의 해인데 양의 형태는 이미테이션 주얼리 Imitation Jewelry 쪽이 더 많아요.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귀엽고 깜찍하게, 세련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책 읽는 사람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는 책갈피, 돈보기, 안경 등의 물건을 책 형태로 디자인해서 쓰면 유용하고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수적인 장식물, 단순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주얼리를 그는 ‘사람의 몸 위에 세워지는 작은 건축물 혹은 귀금속과 보석을 사용한 의상’으로 정의한다.

“주얼리는 장신구이기 이전에 하나의 상징, 추억입니다. 제 욕심이라면 아직도 주얼리를 사치품이라고 여기는 분들께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년에 두 번 발간되는 트렌드 북 작업을 더욱 알차게 진행하고, 후배들 가르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는 김성희 씨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성실한 일꾼’, ‘보석의 숨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눈 밝은 사람’으로 자자하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 역시 그 어떤 보석들보다 빛난다는 뜻이다. **★**

김청연기자